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 '비상'

예산 전년비 40% 감소 안전요원·장비 등 부족 해경 부활 업무 분담 등 지자체 대책 마련 고심

◆신안군은 올해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부랴부랴 추가로 편성했다. 신안 관할 10개 해수욕장에 29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여태껏 확보했던 예산은 2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년도에 견줘 안전요원 인건비 예산 지원을 4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자체 가용 예산도 부족해 제대로 인원·장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해수욕장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뒤부터다. 정부가 해경을 대체할 민간 전문인력과 구조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나마 해양경찰청이 부활해 해양수상부 산하로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



완도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은 피서객들 안전을 위해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 지역 해수욕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 <완도해경 제공>

가 떠안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줄어=신안군은 올 들어 우전해수욕장을 비롯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비금도 하트해수욕장 등 지역 9개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24명을 확보했다. 전년도 33명에 견줘 9명이 줄어든 것으로, 안전요원 인건비가 지난해(1억4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한 8400만원에 불과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신안군은 지난해까지 전남도와 질

안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전남도 예산과 군 자체예산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신안군은 올 들어 쟁쟁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새로 투입하기 위해 추가예산(2000만원)을 긴급하게 확보하느라 애를 먹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해남군도 올해 안전관리요원을 지난해(25명)보다 적은 1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완도도 전년도(63명)보다 부족한 54명을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자격증소지자를 그나마 늘린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처지다. 고흥의 경우 관할 해수욕

장 안전요원(94명)을 전년도(85명)보다 늘렸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오히려 전년도(20명)보다 5명이 줄었다. 대신, 자격증이 없는 '수영 좀 하는' 일반인을 다소 늘렸다. 인명 구조선도 전년도(2대)보다 한 대가 줄었고 수상오토바이(31→23), 사륜오토바이(12→10)도 감소했다. 구명보트(45→50)는 다소 늘어났다.

◇내년엔 바뀌려나=정부는 지난 2015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뒤 해경을 대체할 민간 전문인력과 구조장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서 가용 예산이 없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예비비 등을 임시방편식으로 투입해왔다. 제대로 된 인원·장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양경찰청 부활을 계기로 그동안 지자체가 떠안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업무를 다시 가져가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ilee@
/해남=박희석기자 dia@
/고흥=주각중기자 gju@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전경

“행복한 전주 승암마을, 함께 만들어요”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 40억 투입 공동체 지원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고흥 승암마을을 주민들이 직접 바꾸는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최근 고흥 승암마을 야외광장에서 마을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암 새마을을 조성 위한 '전주 승암마을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암 새마을을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승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악기와 수공예 등 주민동아리를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배움터 운영에 나서게 된다.

주민공모 아이디어 활동을 추진하고, 집수리 봉사단의 만들수리, 승암마을만의 마켓리를 개발하는 주민공작단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참석 주민들은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통해 승암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그동안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승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상을 마스터플랜에 담아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새마을을 조성사업은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승암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함께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창 출신지구 도로 4차로로 확장한다 24억 투입 2019년 완공

도로 폭이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국도 23호선 전북 고창군 출신지구 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아직 확장이 안 된 300m 구간이 대상이며 24억원이 투입돼 2019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구간이 왕복 4차로가 돼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박형진기자 phi@

‘빛의 향연’ 순창 강천산 야간명소 조성

3억 들여 다음달 착공

순창 강천산 야간명소와 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순창환상캠핑 사업’이 선정, 3억원을 들여 다음달 야간 관광명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순창 환상캠핑 사업은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빛 융합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에서 미디어 공연과 색다른 야간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은 ▲혼합현실 콘텐츠 ▲미디어 캔버스 ▲증강현실 콘텐츠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진행된다. 혼합현실 콘텐츠는 야간 환상캠핑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 캔버스 존은 인터랙티브 프로

젝션 맵핑을 통해 병풍폭포의 암벽 표면에 관람객이 그린 그림이 실시간으로 형상화된다. 또 관람객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숨겨진 증강현실 마크를 찾아가며 자신만의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공간도 마련된다.

군은 이외에도 버스킹, 타로, 그림자놀이 등 다양한 소규모 공연도 진행해 강천산 야간 관광의 다양성을 더할 계획이다. 군은 강천산 성수기인 8월 중 2주간 환상캠핑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강천산을 전국 제일의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38억을 투자해 강천산 야간명소와 사업의 실시계획 및 콘텐츠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야간명소화 사업은 2018년 완료돼 2019년부터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순창=정양근기자 jyg@



부안군, 6m 개양할미 퍼레이드 눈길

여름 휴가철, 부안지역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개양할미 퍼레이드 <사진>’가 선을 보인다.

개양할미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서해를 거닐며 풍랑에서 어부를 보호하고 어민들의 풍어를 돕는 것으로 부안 일대에서 전해 내려온다.

개양할미 퍼레이드는 6m가 넘는 개양할미 모형과 8선녀 복장을 한 공연진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적벽

강 언덕 위 ‘수성당’에서 출발, 적벽강, 관광해수욕장, 물의거리, 부안곰소갯길 축제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지역적 스토리를 담은 공연을 펼치게 된다. 수성당은 ‘개양 할미’에게 제를 올리는 당이다.

이번 거리 퍼레이드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영광군, 군산 근대역사 배움의 장 마련

청소년 문화 캠프 호응

영광군은 최근 군산 일대에서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근대 역사 문화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역사 문화캠프는 국내 근대 역사 시설을 돌아보며 개화기 근대시설물이 들어오는 과정과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근대역사박물관과 동학사, 일본식가옥 등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 현장을 방문하여 근대역사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역사캠프가 참가 학생들의 역사를 보는 시야를 많이 넓혀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 · 전원주택지

- 담양 무정면 오례리 1495㎡ 창평에서 15분 5100만원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896㎡ 전양중을 2억2백
- 급매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할도 적합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6백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월파면내편 양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성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이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남평이파트 2천세대 중심지 대지 886㎡ 총당 200평씩 공사중 16억5천
- 월산동 4차선과 2차선점 땅 129㎡ 칠촌초 2층상가주택 2억6천
- 충정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원원수익 25억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좋은 9억6천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월산동 농성초전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음형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흥군 상업지 254㎡ 공사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이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감정 24억선 매도 12억
- 무안군 일로읍 축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광양, 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